

본문: 누가복음 16 장 1-8 절

제목: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use worldly wealth to gain friends)

1.

오늘은 주현 후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성탄절이 지나고 12 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1 월 6 일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냈고 현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교회 전통에 따라 주현절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동박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예수님이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냈다고 이해하여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전통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냈다고 이해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난 주 주현 후 첫 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추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형식과 본질의 싸움에서 율법의 본질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예수님보다 미리 와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먼저 걷게 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한이 대항하여 싸웠던 실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 했었나요? 바로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한 성전체제(temple system)이었습니다. 그 성전시스템은 결국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 무엇을 좇아 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대제사장들은 돈을 따라 갔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삶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 중에 택일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단순화 합니다. 재물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복잡한 삶을 그렇게 단순화 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가지실 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돈 아니면 하나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돈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그 길은 확연히 갈리지만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의 위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돈은 신적인 위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만 돈이 가진 신적 위력이라는 것은 신이 가지고 있는 전능성을 돈이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유사전능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신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만져지면서 하나님처럼 작동하는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씬씀이가 어떠한 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깊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초반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한 목장에서 본문의 이야기에 대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나 봅니다. 저에게 설명을 요청해 오시더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은 성경 안에서 이해하기 힘든 난해(難解) 본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하신 목적과 이유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2.

자 그럼 본문의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이자 비유입니다. 늘 예수님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크게 두 사람입니다. 청지기와 그의 주인이죠. 청지기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모스(oikonomos)"입니다. '집'을 가리키는 '오이코스'와 '법'을 가리키는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집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 관리자(금융계)이면서 전답을 관리하는 마름(농업)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주인의 재산을 이용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을 불러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으로 보아 농촌 배경하에서 주인의 전답을 관리해 주는 마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회계장부를 맡아서 관리하는 주인의 자산 관리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갑자기 주인의 호출을 받습니다. 주인은 그를 부른 후 따져 묻지도 않고 그를 해고 합니다. "자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네. 자네가 맡아서 정리하고 있던 회계장부를 나에게 가져오고 일을 그만 두게나." 주인이 청지기에게 한 말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NIV에서는 "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로 번역되는데 헬라 성경에서는 "자네가 오이코노모스로서 관리하던 장부를 나에게 제출하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에게는 회계 장부를 정리할 몇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해고 통지가 된 겁니다. 우리를 당황시키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이 다음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청지기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영악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악한 방법이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꾸지람을 듣던 청지기의 행동이 이제는 칭찬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한 청지기의 행동이 분명히 나쁜 행동 같은데 바른 행동이고 지혜로운 행동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으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해석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할 방법은 주변 본문들과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 앞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살펴 봄으로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자는 거죠.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AD 1200 년 경에 장이 확정이 되었고 AD 1500 년 경에 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이 확정되기 전에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누가복음 한 권을 통째로 읽었던 겁니다. 오늘 날처럼 끊어서 읽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청지기 비유 앞 뒤에 놓인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들인 거죠.

본문의 바로 앞에 놓인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연이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16 장 마지막 부분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두 이야기 모두 제멋대로 구는 아랫 사람에게 윗사람이 은혜와 호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고 청지기의 주인도 호의를 베풀었죠. 둘째,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셋째, 제멋대로 굴던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손실과 행동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넷째, 아랫 사람들은 윗 사람의 자비와 선한 성품에 자신을 맡깁니다. 다섯째, 마지막에는 깨어진 신뢰에 대한 회복이 이뤄집니다. 이것을 단순화 시키면 잘못을 저지른 아랫 사람에 대한 윗 사람의 호의와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윗 사람의 호의는 아랫 사람의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중요하구요.

본문 뒤에 놓인 단락들과 본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주인을 잘 선택하여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에 실패한 케이스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가 연이어 나오는 것이구요.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실상은 돈을 따르는 바리새인들로서 실패한 케이스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자신의 이웃인 거지 나사로에게 돈을 쓰지 않고 인색하게 굴다 지옥이라 불리는 하데스(Hades)로 떨어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만약 자신의 생의 끝을 알았다면 자신의 재물을 그렇게 인색하게 사용하지 않았겠죠.

이런 맥락들을 통해 볼 때, 본문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돈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종말론적인 감각을 가지고 돈을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회계장부의 제출을 요구 받은 청지기가 자신의 끝을 인식하고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을 인식하고 그 끝나는 시간에 자신이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를 인식하고 돈을 사용하게 되는 이야기 인 겁니다.

특히 본문과 바로 이어진 9-13 절의 말씀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는 주제로 본문의 주제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는 뜻을 자세히 이해하면 본문의 비유가 의도하는 바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잘 이해해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도구를 더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의 사회적, 문화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틴의 사회 속에서 공유되어 오던 공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이해해야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번째 개념은 평판과 영예 그리고 수치 개념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한 사람의 영예(dignity)와 수치(shame)가 매겨졌습니다.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에게는 영예가 따라 왔고 나쁜 평판을 듣는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오늘날 보다 훨씬 다른 이들의 평판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두번째 개념은 호의(favor) 또는 호혜(reciprocity)의 개념입니다. 호의를 받은 자는 그것을 베푸는 자에 뭔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호혜이지요. 원래는 부족 사회에서 물물

교환하는 개념이 호혜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부한 사람의 호의는 충성(loyalty)이나 영예로 갚아지곤 했죠. 동가(同價)의 재물이나 동등한 가치로 갚을 형편이 안 될 때, 사람들은 경의(respect)나 영예(honor)를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충성까지 덤으로 돌려주었죠.

그렇다면 평판과 호혜의 사회/문화적 개념이 본문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평판에 의한 영예의 개념으로 본문을 살펴보죠. 주인의 해고 통지를 듣고 청지기는 회계장부를 들고 소작 농들을 한 명씩 찾아 방문합니다. 그리고 소작 농들이 진 빚을 반 값으로 깎아 주며 장부에 친필로 서명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주인 앞에서 혹시나 대조할 일이 있을 때 친필로 싸인했기에 변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빚을 깎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빚을 절반으로 탕감 받은 소작농들은 청지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겠죠.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준다면 자신은 중국에 가서 지위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고 기대했습니다. 결국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소작농들의 평판에 의해 그의 영예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인은 그의 영리한 행동에 대해 칭찬으로 갚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판으로 그 동네에서 영예를 얻게 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은 다른 평가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소작농들의 좋은 평판의 결과로 주인의 마음까지 움직여지고 주인은 그의 행동에 대해 영예로 되갚아 주게 된 겁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사회문화적 개념 중에 다른 하나는 호혜와 수혜의 개념이라했죠. 먼저 주인과 청지기 사이의 호혜와 수혜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의 부당한 행동을 알고도 즉결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청지기에게 계산하고 셈하여 만회할 수 있는 말미를 제공했습니다. 주인의 호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성품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호의가 풍성한 사람인 줄 알았고 지혜로운 주인임을 알았기에 그가 지혜롭고 영리하게 처신한다면 그의 수치가 만회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겁니다. 실제로 주인은 그의 영리한 행동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며 그의 모든 불의한 행동들을 눈감아 주죠.

두번째로 청지기와 소작농 사이에서 일어나는 호혜와 수혜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재물이 아님에도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빚진 것을 정리한 문서를 수정함으로 소작농들의 빚을 경감해주고 어느 정도 탕감해 줍니다. 주인의 재물을

이용한 호혜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혜자인 소작농들은 그에게 영예를 선사합니다. 소작농들은 그가 만약 청지기 직에서 물러날 경우 그를 돌봐주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불경기에는 주인들이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 줌으로써 인정이 많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베푼 호의는 청지기의 행동을 자극했고 청지기는 주인의 호의와 자비의 성품을 신뢰하여 불의하지만 주인을 영예롭게 할 일을 진행해 가기로 한 겁니다. 결국 불의해 보이지만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 소작농들도 이득을 얻고, 결국에 주인까지 영예를 누리게 되는 일석이조의 일로 결말 납니다. 자신의 처우가 개선되고 끝에 가서는 자신의 삶에도 영예와 이익을 얻게 되니 결국 일석삼조로 모두가 잘 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 인거죠.

평판과 영예의 개념 그리고 호의와 호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5.

이제 우리가 살펴 본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본문은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란 남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청지기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은 따로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지기 비유는 기독교 종말론의 관점으로 재정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종말론적인 틀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이 맡겨 놓은 위탁재산일 뿐이라는 거죠. 부자와 거지나사로 이야기는 이 논지를 뒷받침 하면서 종말론적인 재정 사용에 실패한 예입니다. 청지기는 비록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끝이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것이 끝날 때를 대비하여 처신 한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끝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불의한 재물의 사용설명서를 본문은 제시합니다. 한 마라도 말하면 주인의 영광과 영예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의 행동이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 주인에게 영예를 선사하는 것이 훨씬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영악스런 행동은 윤리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타인을 위해 장부를 변경하여 빚을 탕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결국엔 주인의 영예를 드높였습니다. 어차피 주인의 재물임으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빚을 탕감하는 경제적 손실도 주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고 사람들로 부터 영예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청지기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다.

우리의 재정 사용이 바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재정 사용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목적으로 우리가 가진 소유가 쓰여질 때 이웃들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얻는 좋은 평판은 결국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구요. 나아가 이런 재정 사용은 결국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 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문과 곧바로 이어지는 9 절 말씀은 이 비유를 이렇게 총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mammon(재물)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mammon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 tent, tabernacle(처소)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본문의 한 줄 요약이 바로 9 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mammon이 사라질 때가 온다.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불의한 mammon을 잘 사용하여 얻게 된 친구로 말미암아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용설명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의 욕망이 아닌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우리의 재정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인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대한 보답으로 영원한 장막으로 초대된다는 것이지요.

6.

지난 주 울타리 물 본사인 LA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울타리 물 회원도 아니고 울타리 물에서 주문해 본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저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김경헌씨 주소 좀 불러주세요.” 직원은 다짜고짜 저의 주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직원은 저의 군대시절 같은 교회에서 성가대를 봉사했던 옆 중대 아저씨였습니다. 그 형님은 유학 온 부인을 따라 20 년 전에 LA 로 이민 온 형님입니다. 그런데 울타리물 사장님께서 그 형에게 갑자기 아는 사람 있냐고 묻더랍니다. 그 사람에게 공짜로 음식을 부쳐주고 싶다고 하면서 아는 사람을 말하라고 재촉했다 합니다. 형님은 제가 생각났고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울타리 물 정말 좋더군요. 그 다음날 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항공 배송의 위용을 처음 느꼈습니다. 고기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 가족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형을 통해 들었는데 울타리물 사장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시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분명 본문의 재정사용 설명서를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급을 통해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배려를 느꼈고 진한 이웃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의 선행에 보답하고자 저는 손편지를 써서 사장님께 영예를 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길일지 모릅니다. 13 절 말씀처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다스리는 사용설명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재물을 통해 주인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버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인자하고 인내심이 많은 것을 이해한 청지기처럼 주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삶이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호의가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 재정 사용도 호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의 성품을 더 잘 알고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고 하나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